

2. 대두수량과 기상요인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한국에너지연구소, 경희대학교) 원종락, 최용호*, 송희섭, 권신한

기상요인이 대두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1976년부터 1981년까지의 강수량, 온도 등의 기상요인과 콩의 품종의 수량을 비롯한 농경형질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7, 8월간의 기상요인이 생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중 온도조건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2. 7월의 온도와 수량 및 입중, 8월의 온도와 등숙율 간에는 부의 상관성이 있었다.
3. 7월의 평균온도와 수량과의 관계 및 8월의 최고온도와 수량과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각각
$$Y = -42.46 X + 1200.86, Y = -37.95 X + 1210.42$$
였다.
4. 중부지방의 맥전작재배지역에서는 개화기에 해당하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고온이 특히 대두의 수량 감소를 가져온다.